2026-01-23-금요일 치유메시지

말씀제목: 복있는 사람
말씀구절: 시편1:1-6

들어가는말씀
오늘도 하나님을 깊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복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응답을 받는다고 한것 처럼 되기를 바란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될것이다.
복음안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시편 1:3절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것이다.

서론 – 먼저 잡아야 할 언약이다.
1.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반드시 깨지게 되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3직이다. 이안에서 약속하셨다.
2. 우리는 반석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반석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안된다. 놀라운 열쇠를 주셨다.
천국열쇠 –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것과 같다.
3. 망대, 여정, 이정표 시작, 과정, 결론까지 성경에 써놓았다. – 이대로 살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본문에 써놓았다.
본론 – 답을 가진자는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1. 답을 가진자
1)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2)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3)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4) 겸손한 자이다. – 영적인 힘이 있기에 괜찮다. 섬기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 사람에 인생에 답이 난것이다.
2. 말씀의 사람
1)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이 내가 부담이 된다면 정상은 아니다.
2)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3)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말씀을 잡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자체가 굉장한 힘이날것이다.
예배, 기도, 말씀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광야로 가는데 말씀없이는 갈수가 없다. 성막 그게 우리 시대에 예배이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곳이다 지금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3. 결론 - 묵상, 기도, 예배 –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것을 결정한다.
1)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 기도 찬송도 있다. 헌금도 있고 다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안에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다. 조금 일찍 오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광야에서 지금

예배처럼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로 갈지 아는 답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배 때 받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다.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이다.
2) 기도 참 중요하다. 아침, 낮, 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 우리 안에 들어와 언약이 되면 정말로 축복이겠다. 여기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게 있다. 진짜 나도 기도하겠다는 뜻을 정하는것이다. 마음에 결심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정해지면 시작이다. 오늘 핵심 예배는 렘넌데이라서 그런 메시지였다. 청소년 수련회때 요약을 해서 전달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 모든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3)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깊은 만남이 될것이다. 이것이 치유이다.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치유의 근본이다. 말씀만 들어와도 치유된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배를 안드리려고 한다. 예배 회복 기도회복하면 영적문제가 남아 있을수가 없다. 그 출발이 말씀이 딱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뱀의 머리를 깨는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진다. 기도하고 싶어진다. 그 뱀의 머리를 깨지기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 말씀 한마디 들어오는 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한다. 이것이 믿어진다. 언약이 되어진다. 이것을 누리게 된다. 영적문제가 남아 있을수가 없다. 천국처럼 치유된다는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영적문제는 이정도되면 다 나아버린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제목은 1번이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는것이다. 이것만 되어지면 진짜 공격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다가 아침, 낮, 밤되어지면 너무 좋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깊은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내가 받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자꾸 발전해서 이리로 가는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다. 말씀이 출발이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어느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씩 주시는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되는것이 아니다.
4)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말씀을 기록하라, 녹취하기도 하라. 말씀녹취하다가 정신병 나은사람들이 제법있다.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것이다. 참 놀랍다. 이런것들을 통해서 차츰 차츰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표하는것 정말로 아침 낮 밤에 언약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다시한번 언약 확인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것이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고 주시는 말씀도 다르다.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내 말씀이다. 더 이상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 언약잡고 기도하라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주시게 되있다. 여하튼 오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도 되고 응답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서 증인이 되시라.

기도
하나님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치유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다시한번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세복 땅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